

美, 이란 ‘한밤중의 망치’ 공격…이스라엘 전폭 지원 있었다

트럼프 작전 승인·보류 때부터 양국 정상 긴밀히 협력
이스라엘, 이란 방공망 무력화…B-2 핵시설 폭격 도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한밤중의 망치’ (Midnight Hammer) 작전 뒤에는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공습 작전을 놓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양국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17일이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실제 공격은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끝내 ‘항전’을 선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타냐후 총리와 공습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위해)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네타냐후 총리의 질문에 이란 남부의 방공 시스템을 제거해달라고 답했다. 폭격기들이 목표 지점(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접근하기 위

해서였다.

JD 뱅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국이 제공한 이란 방공망 타격 목록을 점검했다. 미국의 공습을 사들인 것은 지난 19일이었

다.

이어 “미국의 작전 직전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여러차례 공습을 통해 이란의 (대공) 방어력을 약화시켰다”고 이스라엘 당국자가 말했다.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길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자 서쪽에서 날아온 미 공군 편대가 이란 남부 영공으로 진입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 4·5세대 전투기들이 ‘병커버스터’로 불리는 GBU-57 14발을 비롯해 75발의 정밀유도탄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투하했다. 이란의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은 날아오지 않았다.

폭격기들이 공습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

어 공습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다”며 “우리는 원팀으로 일했다. 아마 어떤 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이번 작전에서의 협력을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놓고선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음 목표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미군에 보복한다면 공습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그들(미국)은 우리가 공습을 계속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로서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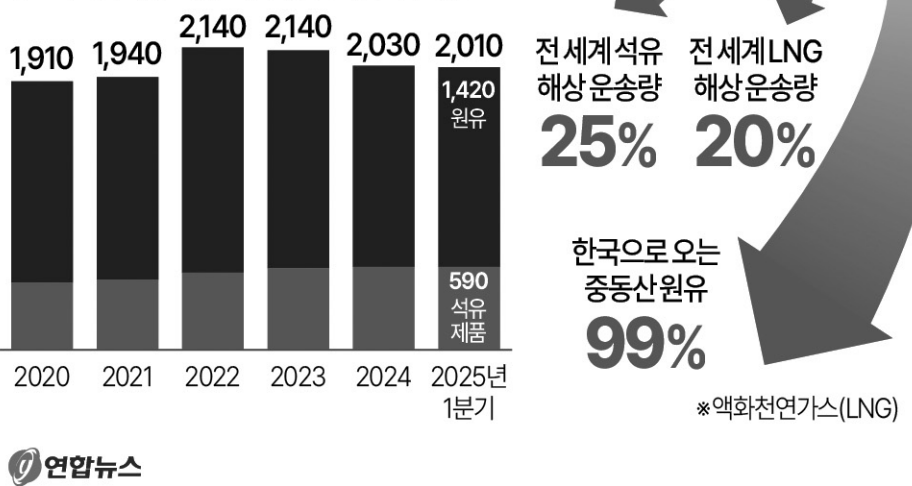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호르무즈해협 석유류 운송량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단위: 만배럴/하루 평균



호르무즈 해협 ‘살얼음판’ …하늘길도 ‘초긴장’

유조선들 초입서 빈손으로 ‘유탄’ 항공사, 두바이·도하 3천편 취소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 해운업계도 경계 태세를 굳세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들어서던 코스위즈데미크호, 사우스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인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정반대 아라비아해 방향으로 급변경했다.

두 유조선의 항로 변경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이 해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애 등 통신 이상 현상이 급증했으나, 이번 항로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나 카타르의 도하 등 위험지역 인근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추가로 취소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미 150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동 위험지역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군의 공습이 이란 측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항공기 운항 경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인용,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직후 영국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이 두바이행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22일 보도했다.

21일 오후 9시 53분에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두바이행 영국항공 항공편은 9시간 후 두바이로 가지 못하고 스위스 취리히에 착륙했다. 21일 출발하는 도하행 항공편 역시 취소됐으며, 22일에는 영국항공의 두바이행과 도하행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

영국항공은 이미 바레인행 항공편을 오는 30일까지 중단했다. 싱가포르항공도 22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싱가포르와 두바이 간 항공편 2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핀에어는 도하 또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이미 취소한 상태다.

KLM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담맘행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다.

/연합뉴스

日 자민당 또 ‘비자금 발목’ … 도쿄선거 ‘역사적 대패’

127석 중 21석 얻어 ‘역대 최소’
한달 뒤 있을 참의원선거도 위기
실패시 ‘이시바 퇴진론 확산’ 전망

지난해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56석을 잃으며 참패했던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

며 ‘역사적 대패’를 맞았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는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자민당은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의석수는 기존 30석에서 9석이 감소했다. 이전 최소인 2017년의 23석보다도 2석 적다. 나이가 자민당은 의회 제1당

지위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회에 다시 내줬다. 도민퍼스트회는 31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이 참패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비자금’ 문제가 꼽힌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수입 일부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비자금 문제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총선에서 패배

한 주된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인물 중 간부 출신 6명을 공천하지 않았으나, 표심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과 관계된 자민당 계열 후보는 17명 출마했는데, 5명이 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다.

비자금 문제와 함께 쟁점 급등 등에 따른 고물가가 자민당에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여론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일본 정치권은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서 한 달 앞으

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은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과반을 유지하며, 사실상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으나, 이시바 정권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쟁점은 여전히 작년의 2배 수준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도 자동차 관세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